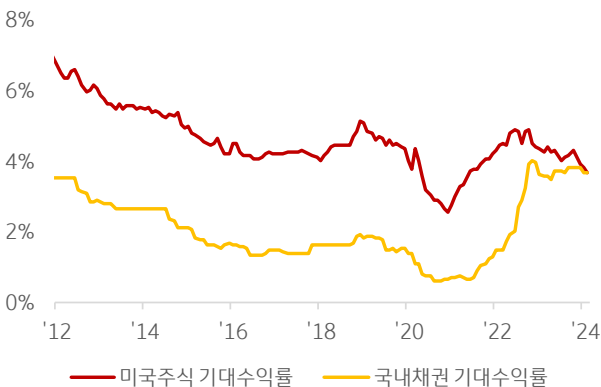


글로벌자산배분ETF로 성과와 위험관리를 동시에!

- 연초 이후 국내외 자산시장 흐름은 예상보다 더딘 미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각국 정부의 증시부양 방침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 일본증시와 기술주, 달러와 금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인 반면, 작년 10월말 금리 정점 확인 이후 반등했던 채권형 상품의 추가적인 성과 개선은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
- 미국이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글로벌 증시 랠리의 연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채권형 상품의 성과 개선은 하반기 본격화 예상. 또한, 본격 대신 레이스에 돌입하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특정 자산이나 종목 주도의 투자 일변도에 변화 조심 확인
-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 변화, 달러 영향력 약화, AI 테마 관련 빅테크 종목 순환매, 금/비트코인 등의 비전통자산 강세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고금리 메리트 약화 및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구간에서 안전자산 및 달러 대체재로 주목받는 금,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채권(원화) 투자를 병행한다면 경기 여건 변화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성과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경기 국면에 구애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연금 등의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원화 자산이 기본 통화인 국내 투자자의 경우 원화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포지션은 축소하고, 달러 자산인 미국 대형주식, 대체자산인 금 편입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확대 기반 마련 필요
- 1970년 이후 금 가격은 3번의 장기(5~10년) 상승랠리를 나타냄. 모두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을 동반한 케이스로 금리 인하 구간,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재임기간 나타났던 달러 횡보 구간이 재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근 금 가격 상승 랠리 역시 장기 트렌드를 나타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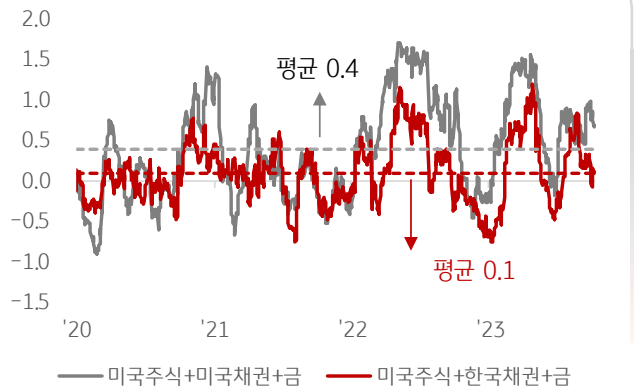
좁혀진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 S&P500 Earnings yield 및 CD91 YTM 추이

원화채권 편입으로 개선된 분산투자 효과*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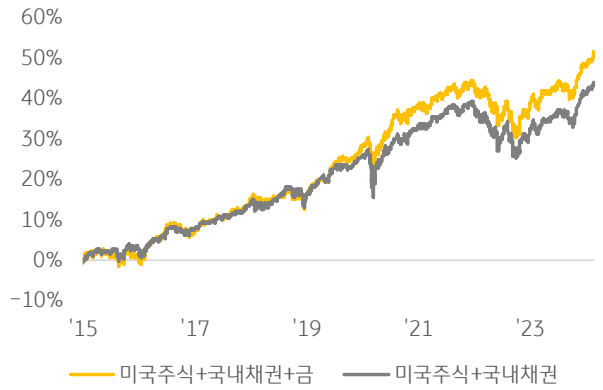
* 투자비중은 30:55:15 동일, 주식-채권/주식-금/채권-금 30일 상관계수 평균값

금과 달러인덱스 장기 추이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금 편입 여부*에 따른 성과 비교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 미국주식(30%)+국내채권(55%)+금(15%) vs 미국주식(30%)+국내채권(70%)

■ 관련 KBSTAR ETF

상품명	총보수(연)	투자포인트
KBSTAR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461490)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헤지펀드사 'Bridgewater'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대형주(30%), 국내채권(55%), 금(15%) 투자를 통해 개별자산 투자 대비 안정적 시장 대응과 높은 수익 추구

※ 출처: KB자산운용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264(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